

‘2021 수원 노동자 아카데미’ 선착순 참여자 모집

노동·경제·문화 등 다양한 분야 강좌 마련

수원시는 노동·정치·경제·과학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‘2021년 수원 노동자 아카데미’ 교양 강좌를 운영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.

‘2021년 수원 노동자 아카데미’는 수원시민 또는 수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

하는 사람 누구나를 대상으로 대면·비대면 교육 각 10명씩 총 20명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중이다.

이번 강좌는 무료 교육으로 ‘급변하는 세계, 우리의 미래는?’를 주제로 5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~9시 동안 대면 교육은 수원시노

동자종합복지관(장안구 덕영대로 559) 4층에서, 비대면 교육은 화상회의 프로그램(Zoom)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.

수강희망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에 게시된 ‘2021 수원 노동자 아카데미 신청’ 안내문에서 큐알(QR)코드 스캔 →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 이름, 휴대폰 번호, 거주지·직장 소재

지 등을 기재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.

시 관계자는 “사회 각 분야별로 마련된 이번 ‘2021 수원 노동자 아카데미’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라며 80% 이상 참여하면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김형천 기자/jonghapnews.com